

스커트의 길이와 경기변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패션 잡지 VOGUE KOREA를 중심으로

홍혜림*

지난해 미국의 경제 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는 불황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위축된 소비자 심리는 쉽사리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않고, 기업 환경도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 경제가 불황인경우, 가정의 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품목은 외식과 의류라고 한다. 특히 의류는 그 소비량뿐만 아니라패션 트렌드나 변동주기도 경기변동에 매우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져있다.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패션에 대한 속설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경기변동과 패션과의 관계에 대한 속설은 '불경기에는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는 것이다.

기존 경제학분야에서 이루어졌던 스커트 길이와 경기변동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지만 이는 미국이나 유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국내의 패션과 경기변동에 관한가정들은 속설에 그치고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보다 정확한 트렌드 예측을 해야 하는 패션업계에서는 경기 변동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고, 스커트의 길이라는 트렌드의 주기를 알아보는 것은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변동의 주기가 나타나는 것처럼스커트의 길이에 있어서도 경기변동에 따른 주기가 존재하는지 국내의 잡지에 나타난 트렌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이루기위해 국내 패션 잡지 중에서 유행에 민감한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인 VOGUE KOREA를 선택하였다. 조사 기간은 창간호인 1996년 8월호부터 2009년 6월호에서 트렌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특히 해당 월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VOGUE's Index' 섹션과 'VOGUE Point of view' 섹션, 그리고 'VOGUE Style' 섹션의사진과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료 조사의 결과를토대로 트렌디한 스커트 길이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고, 스커트의 길이가 롱 스커트에서 미디, 미니 스커트까지 오르내리는 반복성이 연도별로

* 연세대학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불경기였던 1997년, 2001년, 2003년에 미니스커트가 트렌드로 제시되었고, 상대적인 호경기였던 1996년, 2002년, 2005년에 롱 스커트가 제시되어 불경기에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라는 것을 일부 뒷받침해주는 결과들이 나타났지만, 호경기였던 2006년에도 미니스커트가 유행으로 제시되었고, 전세계에 불황이 시작된 2008년부터는 스커트 길이에 대한 트렌드 언급이 거의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커트 길이와 경기 변동에 관한 관계를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로 유행하는 스커트의 길이와 경기변동간의 일부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료 조사를 VOGUE KOREA라는 패션 잡지에만 한정하였고 호경기였던 2006년에도 미니 스커트가 유행한 사실에 대한 요인 분석이 향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Key words: 스커트 길이, 경기변동, 패션과 경제, 미니 스커트

I. 서론

지난해 미국의 경제 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는 불황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위축된 소비자 심리는 쉽사리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업 환경도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 경제가 불황인 경우, 가정의 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품목은 외식과 의류라고 한다. 생활 필수품의 경우는 반드시 사야만 하는 항목이지만, 외식이나 의류구매는 상대적으로 선택적이기 때문에 소비에 있어 유동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류는 그 소비량뿐만 아니라 패션 트렌드나 변동주기도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패션에 대한 속설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남대문시장에는 상인들 사이에 남성복지수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이것은 경기가 어려워 질수록 남성정장에 대한 판매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남성정장은 여성복보다는 상대적으로 유행주기가 길고, 비교적 유행도 덜 타는 편이라 불경기가 되면 정장의 소비를 훗날로 미루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구매자의 상당수가 남성 자신보다는 아내나 어머니 등의 여성인 경우가 많아 여성이 자신의 옷을 구매하고 난 후, 남편이나 아들의 정장까지 추가로 구매할 여력은 남아있지 않아서라는 이야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불경기가 되면 우울하고 위축된 소비자들을 자극하기 위해 의류 자체의 색상이 더욱 화려해지고 밝아진다는 주장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불경기에는 무채색이나 저채도의 의상이 더욱 인기가 많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속설보다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경기변동과 패션과의 관계에 대한 속설은 '불경기에는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미니스커트의 유행이 경기의 저점(低點) 통과 신호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또 패션업계에서는 여성들이 경기가 나빠지면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 되도록 짧은 치마와 같은 도발적인 옷차림을 시도한다고

보아 이 가설을 생산과 기획에도 활용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경기가 불황이면 스커트 길이가 길어진다는 주장도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오일쇼크 불황일 때 오히려 긴 치마가 유행했고, 1980년대 '3저(低) 호황기'에 미니스커트가 인기를 끄는 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다.

기존 경제학분야에서 이루어졌던 스커트 길이와 경기변동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지만 이는 미국이나 유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국내의 패션과 경기변동에 관한 가정들은 속설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보다 정확한 트렌드 예측을 해야 하는 패션업계에서는 경기 변동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고, 미니스커트라는 트렌디한 아이템의 주기를 알아보는 것은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변동의 주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미니스커트의 유행에 있어서도 주기가 존재하는지 국내의 잡지에 나타난 변화를 실증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그 결과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내 패션 잡지인 VOGUE KOREA의 1996년 8월호부터 2009년 6월호에서 트렌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특히 해당 월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VOGUE's Index'섹션과 'VOGUE Point of view'섹션, 그리고 'VOGUE Style'섹션의 사진과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고찰

1. 스커트 길이와 경제환경

스커트 길이와 경기변동에 관한 이론 중 '경기가 불황이면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는 가설은 1920년대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폴 니스트롬 교수가 쓴 『패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유래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 책은 가설과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책은 치마 길이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다뤘는데, 그의 이 가설은 주식시장이 엄청난 활황을 보였던 1860년대 초 영국에서 여성들의 머리 장식 높이가 무려 2m까지 극적으로 높아진 데에 착안한 것이었다. 치마 길이와 경기 변동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 최초의 저작에는 '불경기에 오히려 치마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이 주장을 하고 있다. 실증적 자료를 덧붙인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치마 길이는 한창 호황이던 1920년대에는 무릎까지 올라갔다가, 대공황이 발생한 후 다시 바닥을 쓸다시피 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여성들의 치마 길이와 경기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해 연구에 나선 이들이 있는데, 1971년 미국의 경제학자 마브리(Mabry)는 경기 사이클과 미니스커트의 유행주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경기 사이클과 미니스커트의 유행주기 사이에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러한 가설들이 '불경기에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는 속설로 굳어진 이유를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1970년대 석유과

동으로 인한 불황시기에 나타난 스커트 때문이라고 한다. 1930년대 이후 최고의 불경기였던 석유파동 당시 패션업계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미니스커트가 크게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Greenwood(1978)는 '경제가 침체기일 때는 스커트 길이가 길어지고 경제가 호황기일 때는 스커트 길이가 짧아진다'고 하였으며, Troxell(1981)은 '경제가 호황일 때는 스커트 길이는 느슨해지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스커트 길이는 길어지고 허리는 조이는 옷이 된다'고 하였다. 박혜선(2002)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는 패션 변화속도가 느려지며 스타일 면에서는 스커트의 길이가 긴 스타일이 유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색상도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어두운 색이 유행한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상황을 1994년부터 2007년까지의 주부 잡지를 통해 분석한 김세봄(2008) 연구에 따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전후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경제위기 전후 모두 무릎 위 길이의 스커트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 위기 후의 스커트 길이에서 무릎 위 길이 비율이 위기 전보다 조금 더 증가하였다는 것을 볼 때 경제가 불황일 때 하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과거의 자료 이외에 미니스커트의 유행주기와 경기변동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고, 숙녀복을 중심으로 한 경기 변동과 패션 광고의 요소변화에 관한 연구(정경호 2001) 등은 있었으나, 구체적 의류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2. 미니스커트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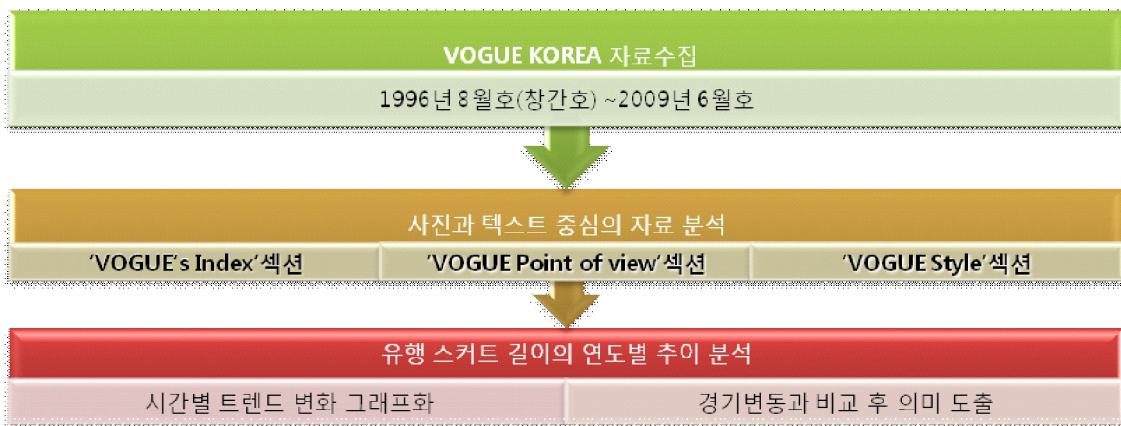
최초의 미니스커트는 1959년 영국의 의상 디자이너인 메리 퀀트(Mary Quant)가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무릎 위 허벅지를 드러낸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시대였으므로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반발도 심했지만 결국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게 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는 1967년, 가수 윤복희가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기 시작하면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미니스커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분위기로 경찰들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무릎 위 20cm까지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는 국내에서 미니스커트 보다는 핫팬츠가 유행하였는데, 그 동안 인기였던 미니스커트의 유행이 잠시 주춤하고 패션과 실용성을 가미한 핫팬츠가 패션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90년대로 오면서 다양한 패션 아이템이 선보이고 특히 남녀 구분이 없는 유니섹스 패션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방법

이 연구는 트렌드에 민감한 20대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국내 패션 잡지인 'VOGUE KOREA'로 선정하였다. 미니 스커트라는 아이템의 특성상 30대 이상의 여성들보다는 10대~20대의 여성들이 착용하기 쉽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대를 타겟으로 하는 보그 코리아를 선택하였다. 보그 코리아는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패션 잡지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창간호가 1996년 8월호로 국내 IMF 외환 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어 조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자료조사 기간은 창간호인 1996년 8월호부터 2009년 6월호 까지 트렌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1997년의 외환위기 전후의 자료분석에 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기간을 정하였다. 특히 해당 월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VOGUE's Index' 섹션과 'VOGUE Point of view' 섹션, 'VOGUE Style' 섹션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기준은 트렌드를 앞서 제시해 주고자 하는 VOGUE's Index' 섹션과 'VOGUE Point of view' 섹션, 'VOGUE Style' 섹션을 중심으로 1) 스커트의 길이나 실루엣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텍스트 2) 직접적 언급이 없는 경우 간접적으로 스커트 길이와 실루엣을 알 수 있는 이미지로 한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1996년도

먼저 1996년도에 발행된 'VOGUE KOREA'를 살펴보면, 미니스커트의 이미지는 'VOGUE's Index' 섹션에서 1개만 찾아볼 수 있었다. 더욱이 그 이미지가 1996년 여름인 8월호에 실렸다는 것을 감안할 때 1996년도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미니스커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스커트의 길이와 실루엣을 나타내는 단어에 있어서도 '을 겨울, 우리 모두는

린 앤 롱(lean&long) 규칙을 지킨다. 이유는 단순하다. 키 크고 날씬하게 보이는 것만이 소원이기 때문이다'라는 문구들을 사용함으로써 날씬하게 보이기 위한 슬림하고 긴 길이의 옷이 트렌드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1

		
1996년 12월호 VOGUE Point of view	1996년 12월호 VOGUE Point of view	1996년 12월호 VOGUE's Index

2. 1997년도

1996년이 무조건적인 미니멀리즘이었다면, 1997년의 보그 코리아는 '뉴페미니즘'이라 불리는 일종의 로맨티시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실루엣에 있어서는 1996년의 미니멀리즘을 완벽히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공존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는 '가늘고 긴 실루엣의 드레스'나 '또 하나의 트렌드는 린 앤 롱 실루엣' 등과 같은 텍스트로 표현되었다. 'VOGUE's Index' 섹션에 나타난 스커트들의 길이 또한 허벅지를 드러내는 것이 거의 없이 발목에서 무릎 사이 길이의 스커트가 대부분이었다.

표 2

		
1997년 2월호 VOGUE Point of view	1997년 4월호 VOGUE Point of view	1997년 4월호 VOGUE's Index

1997년 6월호에는 VOGUE Point of view 섹션에 수영복 소개가 나오는데 '빨간색 비키니와 과장되게 작아진 비키니', '아슬아슬한 항해'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점차 트렌드가 미니로 나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그리고 1997년 8월호에서 기존 로맨티시즘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구조와 테일러링'이라고 하면서,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것은 9월호에서 '마이크로 미니' 등의 단어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미니스커트에 대한 언급은 2007년 12월호까지도 꾸준히 나타났다.

표3

		
<p>1997년 6월호 VOGUE Point of view</p>	<p>1997년 8월호 VOGUE Point of view</p>	<p>1997년 9월호 VOGUE's Index</p>

3. 1998년도

1998년 1월호를 보면, 히트 아이템이라는 인덱스 아래 'knee length skirt'라는 무릎 길이의 스커트들을 소개하는 섹션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시작으로 3월호에 무릎 길이의 스커트들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미니스커트도 함께 보여주면서 'More Choices'라는 타이틀로 그 당시 공존했던 여러 가지 트렌드를 제시한다. 8월호부터는 다시 스커트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은 롱 앤 루즈(long&loose)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 1998년의 VOGUE's Index에서 새롭게 나타난 특징은 'Chip & Chick'이라는 코너로 운영된 저렴한면서도 트렌디한 의류를 제안하는 페이지였다. 이것은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려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른 패션 잡지의 마케팅적 측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길어진 스커트의 트렌드는 12월 까지 계속되었는데 심지어 12월호에서는 '이 짧은 스커트 수트는 이번 시즌의 롱 앤 린 실루엣에 대한 어떤 도전이죠' 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트렌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4

<p>1998년 1월호 VOGUE's Index</p>	<p>1998년 8월호 VOGUE Point of view</p>	<p>1998년 8월호 VOGUE's Index</p>	<p>1998년 12월호 VOGUE Point of view</p>

4. 1999년도

1999년에도 미니멀리즘에 대한 트렌드는 지속된다. 그와 함께 로맨틱시즘이 트렌드로 제시되면서 로맨틱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999년 가을부터는 기존에 지루하고 고루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클래식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면서 뉴클래식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사용하고, 그에 따라 무릎 길이나 그보다 더 긴 길이의 스커트에 대한 트렌드를 새로이 제시한다.

표 5

<p>1999년 1월호 VOGUE Point of view</p>	<p>1999년 4월호 VOGUE Point of view</p>	<p>1999년 4월호 VOGUE Point of view</p>	<p>1999년 11월호 VOGUE Point of view</p>

5. 2000년도

2000년도에는 스커트의 길이에 대한 텍스트에서의 제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히트 아이템 중에 6월호에서 쇼츠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보아 그 해 여름에는 짧은 길이의 반바지가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올 여름의 히트 아이템, 용기 있는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쇼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쇼츠가 다소 파격적이고 트렌디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텍스트 이외에 이미지에 나타났던 스커트의 길이는 대부분 무릎 길이가 많았고, 11월호의 index에서 '페미닌한 플레어 스커트가 돌아왔다'라고 하여, 무릎 길이의 플레어 스커트를 트렌드로 제시한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표 6

	
<p>2000년 6월호 VOGUE's index</p>	<p>2000년 11월호 VOGUE's index</p>

6. 2001년도

2001년도 3월호에서는 '미니스커트의 유행이 돌아왔다'라는 문구를 통해 미니스커트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트렌드는 미니스커트라는 것을 다양한 소재와 색상의 이미지들과 함께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외의 2001년도 잡지에서는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어 지지 않아서 유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6월호에서는 'cool match'라는 제목으로 쇼츠를 매칭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었다. 7월호에서는 바캉스 시즌을 의식한 듯 바닷가에서 입을 만한 원피스 드레스들을 선보였는데, 그 원피스들의 길이가 대체로 무릎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미미하게 변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당시 트렌드 룩은 레트로, 스포티, 페미닌, 앤드로지너스 등으로 정의되고 있었는데, 쇼츠의 유행은 스포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하늘하늘한 원피스 드레스의 유행은 페미닌 경향을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p>2001년 3월호 VOGUE Point of view</p>	<p>2001년 6월호 VOGUE's Index</p>	<p>2001년 7월호 VOGUE's Index</p>

7. 2002년도

2002년 초봄에는 스커트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2월호에서는 '이번 시즌에는 길고 넓고 풍성한 것에 주목할 것'이라고 하여 트렌드가 길고 넓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아울러 '풍성한 긴 스커트, 통이 넓은 와이드 팬츠' 등을 트렌디 아이템으로 제시하고 있다. 8월이 되면 스커트의 길이가 무릎 아래 선으로 다소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것은 여름이라는 계절적 영향도 일부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

	
<p>2002년 2월호 VOGUE Point of view</p>	<p>2002년 8월호 VOGUE's Index</p>

8. 2003년도

2003년은 미니와 함께 시작되었다. 2001년의 미니 유행보다 더욱 강세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으며, '경제지수와 스커트 길이는 반비례하지 않았던가!'라고 하여 불경기에 미니스커트가 유행이라는 속설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5월호에서는 머스트바이(MUST BUY) 아이템으로 미니를 제시하고 있고, 3월호에서는 요즘 패션계에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미니 스커트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 미니스커트에 적합한 다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도 제시하고 있어 날씬한 몸이 사회적으로 이상적이라는 것까지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


표 9

		
<p>2003년 1월호 VOGUE Point of view</p>	<p>2003년 3월호 VOGUE Point of view</p>	<p>2003년 3월호 VOGUE Point of view</p>

9. 2004년도

2004년도에 새롭게 떠오른 트렌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었는데, 20년대 플레퍼 룩과 50년대 프리티우먼 룩이 그것이다. 플레퍼 룩의 경우에는 여성의 몸을 조이던 코르셋에서 벗어나 루즈하고 비교적 품이 넓은 형태의 편안한 룩을 말한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원피스의 허리선이 본래보다 낮아지고, 스커트의 길이에 있어서도 무릎 아래까지 오는 것이 많아졌다. 50년대 프리티우먼 룩은 험렁한 펜츠와 상의의 니트를 매칭하거나 다양한 색상이 프린트 된 허리는 타이트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퍼지는 풀 스커트 등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룩은 스커트의 길이도 무릎 아래로 내려가게 하였다. 10월호에서는 '클래식하면서도 클래머러스한 마담'이라는 제목으로 세련된 의상을 보여주는데, 2004년도 초반보다는 스커트 길이가 약간 올라간 경향이 있지만, 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표 10

		
<p>2004년 3월호 VOGUE Point of view</p>	<p>2004년 3월호 VOGUE Point of view</p>	<p>2004년 10월호 VOGUE Point of view</p>

10. 2005년도

2005년도 1월호에서 보여준 '국내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2005년도 트렌드' 섹션은 그 해 봄이 얼마나 페미닌한 분위기였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꽃무늬의 화려한 원피스부터 가벼운 쉬폰 소재 스커트에 이르기까지 여성스러운 아이템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05년 하반기에는 스키니 진이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면서 스커트에 대한 인기가 수그러들게 되었다. 스키니 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11월호에는 '패션계의 슈퍼스타가 있으니, 그녀의 이름은 '스키니 진'! 전세계에 열성적인 광 팬을 거느리고 있는 그녀를 차지하는 것은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스키니 진의 열풍 속에서 보이는 하반기 스커트들의 길이는 대부분 정장의 느낌이 나는 무릎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표 11

		
<p>2005년 1월호 VOGUE Point of view</p>	<p>2005년 2월호 VOGUE Point of view</p>	<p>2005년 12월호 VOGUE Point of view</p>

11. 2006년도

보그 코리아는 2006년은 뉴미니멀리즘 시대라고 정의하였다. 1월호에서 제시한 2006 S/S 트렌드에서는 '허벅지와 종아리를 오르내리며 사계절 내내 짧은 팬츠를 즐겨라'라고 하여 팬츠의 강세를 예고하고 있으며 그 길이에 있어서는 짧은 것이 유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8월호에서는 '올 가을엔 미니스커트에 블랙 스타킹'을 신으라고 제안하고, 80년대 유행과 함께 재발견 된 블랙스타킹의 매력에 대해서만 여러 페이지를 할애하여 소개하는 등 하의의 길이가 계절에 상관없이 계속 짧을 것이라고 예고한다. 9월호에서는 'Talking about mini'라는 섹션을 통해서 '미니스커트와 쇼츠, 미니드레스, 미니 세 자매가 포진하고 있는 하반기'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미니를 입는 스타일링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미니가 왜 여성들의 벗인지를 이야기한다. 이처럼 2006년도는 미니로 시작해서 미니로 끝나는 미니에 대한 트렌드를 보여준다. 다만 과거와 다른 것은 미니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스커트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지도 함께 언급해서 아이템별로 나누는 것이 아닌 길이로 나누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는 길이가 트렌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다.

표 12

 <p>GET SHORT 길이가 마이크로 종아리 사이를 오 스타일링은 스포티</p> <p>이지아 롱 카디건, 이윤경 루엘라 비블 이정금 스포티한 쇼</p>	 <p>VOGUE</p> <p>come back black legs</p> <p>패션의 리본으로 차에 의해 커두로 그렌지를 모리우거나 두 타리에 공여 제이 코업을 시도하는 영웅 스타일! 1982년 유행과 함께, 올 블랙 스타킹의 재발견이 어디까지든 2006년 가을, 무한대지들은 이 블랙의 원형 스타일링을 어떻게 만들어 올 시즌의 스타일링을 날려</p>	 <p>VOGUE</p> <p>talking about mini</p> <p>미니스커트와 쇼츠, 미니 드레스, 미니 세 자매가 포진하고 있는 하반기를 위해 네 명의 미니스타킹 필요는 가을에 비해 지금도 필요하다. 미니 스타일링의 재발견이 스타일링과 패션 스타일링, 미니 세 자매가 벗인지를 즐겨라.</p>
<p>2006년 1월호 VOGUE Point of view</p>	<p>2006년 8월호 VOGUE Point of view</p>	<p>2006년 9월호 VOGUE Point of view</p>

12. 2007년도

2007년 봄은 '미니드레스의 봄은 올 봄까지 유효'라는 문구와 함께 시작한다. 미니의 인기는 봄까지는 지속되지만, 식지 않는 스키니의 열풍 때문에 스커트의 인기는 다소 식은 것처럼 보였다. 3월호에서는 '스키니 시즌2'라는 제목하에 다리를 더 날씬하게 조여주고 더 길어보이는 착시효과를 주는 제대로 된 스키니 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2007년도에도 길어보이고 날씬해 보이려는 여성들의 욕구는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반기에는 무릎을 살짝 덮는 미디길이 스커트의 약진에 대해 소개하면서, 'MIDI COME BACK!'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가을 트렌드에서는 '미니 스커트와 미니 드레스여 안녕'이라는 것으로 미니가 더 이상 트렌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잇 트렌드로 등극한 톱보이룩'을 보여주

어 여전히 바지가 강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뉴 팬츠의 시대'라는 페이지도 바지의 인기를 실감하게 해주었다.

표13

<p>2007년 2월호 VOGUE Point of view</p>	<p>2007년 9월호 VOGUE Style</p>	<p>2007년 9월호 VOGUE Point of view</p>

13. 2008년도

2008년도의 바지에 대한 인기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Pants Power, 아직은 바지를 입어야 할 때'라는 문구라든지, '아찔한 쇼츠', '점프 수트' 등 모든 트렌드의 제시가 바지를 향해있다. 스커트의 길이나 실루엣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를 통해서 트렌디한 스커트의 길이를 추정해보면 대부분 무릎선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년도의 트렌디한 스커트의 길이는 대략 무릎선이라고 보았다. 11월호에 제시된 '시즌 베스트룩'에서도 거의 모든 스커트가 무릎 길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상반기인 1월과 3월에도 스커트는 대부분 무릎 선이었고, 포멀한 정장 형태에 가까웠다.

표14

<p>2008년 1월호 VOGUE Point of view</p>	<p>2008년 7월호 VOGUE Point of view</p>	<p>2008년 11월호 '시즌 베스트룩' VOGUE Style</p>

14. 2009년도

2009년도에도 바지의 강세는 계속되었다. 전체적으로는 80년대의 무드로 돌아가서 형광색의 색상이 눈에 띄고, 다소 촌스러운 의상이 유행하기도 하지만, 2009년 상반기 트렌드 F4는 Feminine, Flower, Fantasy, Form이라고 하였다. 그 속에서 바지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기사를 쓰기도 하고, 스키니, 페그팬츠, 슬라우니 팬츠 등 다양한 바지를 보여주어 바지의 인기를 나타내었다. 그 안에서 스커트가 차지하는 부분이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된 경향이 있었고, 바지에 집중한 나머지 스커트의 트렌드 제시에 소홀하여, 명확하게 어떤 스커트가 유행인지 정의하기 어려웠다. VOGUE Point of view 섹션의 이미지에 있어서도 미니길이, 무릎길이, 종아리 길이 등 매우 다양한 길이의 스커트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보그 코리아의 자매 매거진인 '보그 걸'의 경우에는 '디자이너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이번 시즌에는 마이크로 미니를 선보였다'는 기사를 2월호에 선보였는데, 이것으로 보면 미니가 다소 강세인 듯 보인다.

표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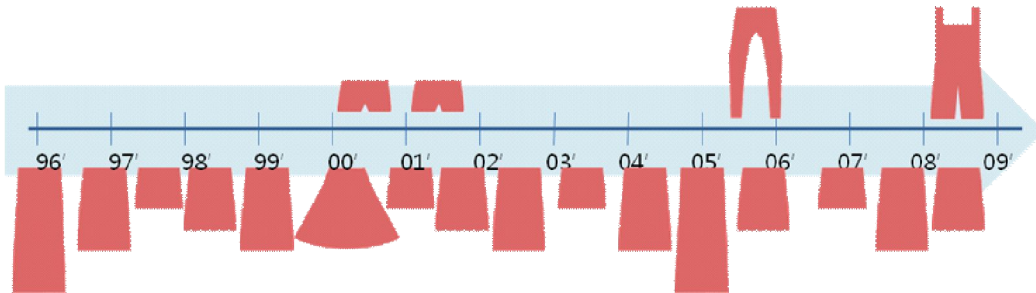
<p>2009년 2월호 VOGUE Point of view</p>	<p>2009년 2월호 VOGUE Point of view</p>	<p>2009년 1월호 VOGUE Point of view</p>

15. 연도별 스커트 길이 추이 분석

보그 코리아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보그 코리아가 트렌디한 아이템이라고 제시했던 스커트의 길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16]과 같다. 하기 표에 따르면 스커트의 길이는 오르내리는 반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 스커트의 길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롱 스커트가 제시되다가 갑자기 미니스커트가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보그 코리아에서 명확하게 미니스커트의 유행을 제시한 시기는 1997년 9월, 2001년 3월, 2003년 1월, 2006년 8월의 네 차례이며, 그 주기는 각각 3년 6개월과 1년 9개월, 5년 6개월로 그 패턴이 일정한 기간을 사이에 두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니스커트가 나타난 시기가 9월이나 3월처럼 여름 시즌이 아닌 때에도 있었음을 볼 때, 계절적인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도 아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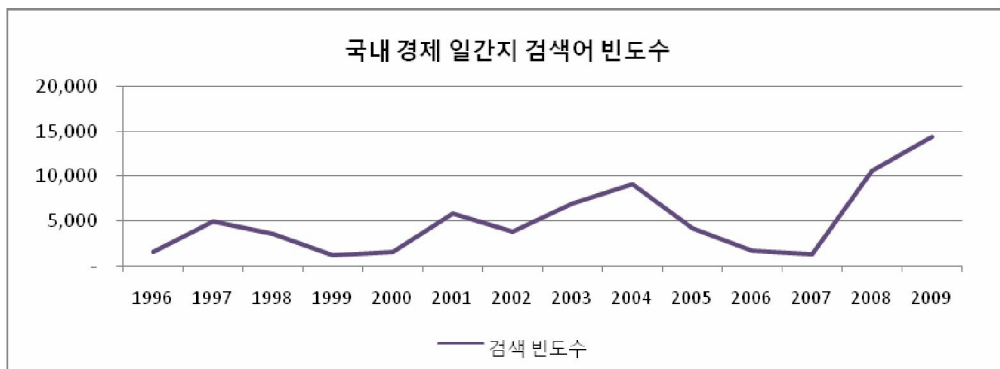


호경기와 불경기를 구별하기 위해 신문기사를 경기 변동 추이를 살펴보는 잣대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신문의 경제보도는 경제지표에 관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객관화된 국내의 경제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심재철, 1998), IMF구제금융 결정 이후 경제 위기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기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이명희, 1999)했고, 2008년 2월 이후에도 경제 위기 상황에 관한 논설들이 과거보다 빈번하게 다루어졌던(김무곤, 장하용, 2009) 것처럼 신문의 경제보도 기사는 경기 변동과 그 방향성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에 관한 기사를 주로 다루는 경제일간지로 범위를 한정하여 각 연도별로 기사를 검색하여, '불경기'와 '불황'이라는 단어의 빈도수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1997, 2001, 2003, 2004, 2008, 2009년에 단어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상대적 불경기라고 정의하고, 나머지 시기들을 상대적 호경기라고 정의하였다.

표 17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불경기	184	584	268	87	128	407	227	860	928	405	178	131	1,373	1,165
불황	1,412	4,422	3,396	1,152	1,452	5,474	3,702	6,101	8,172	3,880	1,575	1,242	9,310	13,224
총합	1,596	5,006	3,664	1,239	1,580	5,881	3,929	6,961	9,100	4,285	1,753	1,373	10,683	14,389

표 18



스커트 길이와 경제 일간지 검색 빈도수를 살펴보면, 빈도수에 따른 상대적인 불경기였던 1997년, 2001년, 2003년에 미니스커트가 트렌드로 제시되었고, 상대적인 호경기였던 1996년, 2002년, 2005년에 롱 스커트가 제시되어 불경기에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라는 것을 일부 뒷받침해주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인 호경기였던 2006년에도 보그 코리아에서는 미니스커트를 유행 아이템으로 제시하였고, 전세계에 불황이 시작된 2008년부터는 스커트 길이에 대한 트렌드 언급이 거의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2003년까지는 불경기일수록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이론이 비교적 부합된다고 할 수 있지만, 2006년부터 최근 2009년 사이에는 경기변동과 유행하는 스커트의 길이에 관한 상관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V. 결론

2008년 미국의 경제 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는 불황을 경험하고 있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기업 환경도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 경제가 불황인 경우, 가정의 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품목은 외식과 의류라고 한다. 외식이나 의류구매는 상대적으로 선택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소비에 있어 유동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류는 소비량뿐만 아니라 트렌드나 변동주기도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패션에 대한 속설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불경기에는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는 것이다.

기존 경제학 등의 타분야에서 '스커트 길이와 경기변동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이는 미국이나 유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내 상황과 동일한 것인지 증명하기 어렵고, 국내의 경우 대부분 속설에 그치거나 전반적인 의류나 색상과 경기변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만 이루어져 있어 국내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변동의 주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스커트의 길이에 있어서도 경기변동에 따른 주기가 존재하는지 국내의 잡지에 나타난 트렌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다.

자료조사는 국내 패션 잡지 중에서 유행에 민감한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인 VOGUE KOREA를 통해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창간호인 1996년 8월호부터 2009년 6월호였으며, 특히 해당 월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VOGUE's Index' 섹션과 'VOGUE Point of view' 섹션, 그리고 'VOGUE Style' 섹션의 사진과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료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트렌디한 스커트 길이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스커트의 길이가 롱 스커트에서 미디, 미니 스커트까지 오르내리는 반복성이 연도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불경기와 호경기를 구분하는 잣대로 국내 경제 일간지에 나타난 '불경기'와 '불황'이라는 단어의 빈도수를 선택하였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상대적인 불경기였던 1997년, 2001년, 2003년에 미니스커트가 트렌드로 제시되었고, 상대적인 호경기였던 1996년, 2002년, 2005년에 롱

스커트가 제시되어 '불경기에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라는 속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인 호경기였던 2006년에도 미니스커트가 유행으로 제시되었고, 전세계에 불황이 시작된 2008년부터는 스커트 길이에 대한 트렌드 언급이 거의 없는 것을 보아 2006년 이후에는 정확하게 '불경기에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는 속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번 자료 조사를 통해 스커트 길이의 유행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부터의 경기 변동과 스커트 길이에 관한 관계는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스커트 길이와 경기 변동에 관한 관계를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로 유행하는 스커트의 길이와 경기변동간의 일부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자료 조사를 VOGUE KOREA라는 하나의 패션 잡지에만 한정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조사의 범위를 좀더 넓히고, 호경기였던 2006년에도 미니 스커트가 유행한 사실에 대한 요인 분석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전자신문] "경기 나쁠수록 초라해 보이기 싫어" 2006. 11. 10, 한국경제
- [전자신문] "불경기에는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고?", 2008. 2. 9, 중앙일보
- 김무곤, 장하용, "경제논설의 현상과 기능에 관한 연구: 2008년 경제위기 관련 신문 논설에 대한 내용분석", 언론과학연구, 9(2)
- 김세봄(2008), "여성잡지에 표현된 패션스타일과 경제환경 변화간의 상관성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 10(5)
- 박혜선(2002), 패션마케팅과 머천다이징, 서울, 학문사
- 심재철(1998). 경제보도의 이상과 현실, 서울, 삼성언론재단
- 에드워드 찬슬러(2001), 금융 투기의 역사, 강남규역, 서울,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이명희(1999), "경제위기와 신문의 경제뉴스 보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경호(2001), "IMF 외환위기를 전후한 의류광고 구성요소의 변화에 관한 연구-숙녀복 잡지광고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Elaine Stone, Mary D. Troxell(1981), Fashion merchandising, New York, McGraw-Hill Inc.
- K.Greenwood and M.Murphy(1978), Fashion Innovation and Marketing, Macmillan, New York, NY
- Marbry, M.A.(1971), "The relationship between fluctuations in hemlines and stock market averages from 1921-1971",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 Nigel Barber(1999), "Women's dress fashions as a function of reproductive Strategy", Sex Roles, 40(5/6)
- VOGUE KOREA(1996.8~2009.6), 서울, 두산매거진편집부
- [Http://www.kinds.or.kr](http://www.kinds.or.kr)